



淘汰期에 들어선 런던의 石油트레이더들

런던의 石油트레이더들은 아직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石油트레이딩(差益去來)에 큰 이변이 생긴 지난해 말 OPEC(석유수출국기구)總會를 고비로 油價의 안정세가 지속되면서, 原油의 현물·선물거래에서 대부분의 석유티레이더들이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당시 런던의 선술집에서 혼한 화재중의 하나는 아랍의 거물급 석유장관과 石油트레이더로 유명한 트랜스 월드, 그리고 日本의 종합상사 및 석유관련회사가 5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였다. 이번의 投機失敗는 수에즈 以東의 트레이더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을 추구게임의 예를 들어 「오피사이드 트랩에 걸려든 것이 아닌가」라는 말이 유력한 트레이더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會社합리화는 곧 경영감축과 연결되는 것이 업계의 생리다. 이에 따라 런던에서는 트레이더戰線의 축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뉴욕, 휴스턴 및 東京으로 主力를 이동하면서 인원삭감등의 재편성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원유의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이 장기화됨에 따라 런던에서는 트레이더의 선별작업이 진행되고 커미션도 줄어들어 도태기를 맞고 있다.

뉴욕先物市場(NYMEX)의 번성과는 대조적으로 런던은 3년전 선용에 상처를 가져온 데이저 체인(Daisy Chain; 원유 한쌍분의 계약서가 수십번씩 거래되는 것이) 붕괴된 뼈저린 경험을 갖고 있다. 런던시장은 투기성이 강한 트레이딩으로 리스크·헷지를 선호하는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아직 만회할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트레이더도 일부 있다. NYMEX는 원유의 자유변동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런던시장은 아직도 야마니 前 사우디 석유장관의 네트백방식과 같은 온건한 체질에 익숙한 것 같다. 제프리 로빈슨氏도 최근 런던에서 發賣된 新著「야마니 秘話」에서 지적했듯이, 야마니의 장관更迭을(83년 1월) 무척 애석해 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티레이더의 흐름이 변한 것은 이 거액손실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독립계 콘설턴트는 냉정히 분석하고 있다. 석유산업의 상류부문(개발·생산)과 하류부문(정제·판매)의 구조개편에 의한 재편성에 따라 언젠가는 또 다시 경쟁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美國이 원유·천연가스의 가격규제를 해제한 2~3년전 부터 세계적인 트레이딩이 시작되면서 NYMEX가 크게 성장하였고, 런던에서도 NYMEX와의 관계증진을 바라는 트레이더들이 적지않다.

그렇지만, 런던시장은 메이저우위의 정보라든가 런던시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트레이더의 淘汰는 독립계에 집중되어 있어 정제부문에 직결된 손실은 경미하며, 메이저系的 트레이더 경우도 큰 피해는 없다. 페르시아의 위기, 美國대통령선거의 향방 및 달러폭락등의 惡材속에 있는 중소트레이더와 대조적으로 신중한 메이저는 석유의 수급·재고의 지표를 중심으로 한 경제의 기초적 조건을 전통적으로 중시한다. 현재 트레이더의 활로는 브리티시·피트롤리엄(BP)의 민영화를 시작한 英國에너지산업(전력·가스)의 규제완화이다. 이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생존에 직결된다고 트레이더들은 기대하고 있다. <日本經濟新聞>